

광주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나눔 현판식'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최삼영)는 지난 20일 생활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초록우산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단체, 병의원을 대상으로 초록우산 나눔현판을 전달했다. (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애인복지재단 백운장학회에 장학금



재단법인 애인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포스코교육재단 이사장 겸임)은 지난 20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재)백운장학회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동부취재본부=김형수기자 chong47@

조오련 아들 성모 "살 빼고 대한해협 도전"

지난해 숨진 '아시아의 물개' 고(故) 조오련(해남 출신)의 아들이자 전 수영 국가대표 조성모(27)씨가 SBS '스타킹'의 다이어트 프로젝트에 참가하며 대한해협 횡단의 의지를 밝혔다.



조씨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손리의 다이어트 킴' 2기 출범 기자회견에서 "원래 아버지가 올해 광복절 때 대한해협을 횡단하려고 했었다"며 "여건이 된다면 살을 빼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내년에 대한해협 횡단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 노년층, 서구보다 더 안정적 삶"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찾은 처칠 日 교수

"노인들의 표정과 몸짓이 무척 생동감 있고 행복해 보여서 놀랐습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와보니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노년층이 미국이나 서구의 노년층에 비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평준화된 삶을 누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



지난 20일 광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하 타운)을 방문한 린 처칠(Lyn churhill·여·66) 일본 다마테 교수는 회원들과 어우러져 '태권무 프로그램'을 즐기고, 미술동호회 '유화동아리'에 참여해 무등산 '새인봉' 공동그리기작업에 참여했다.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통주 강사 최기성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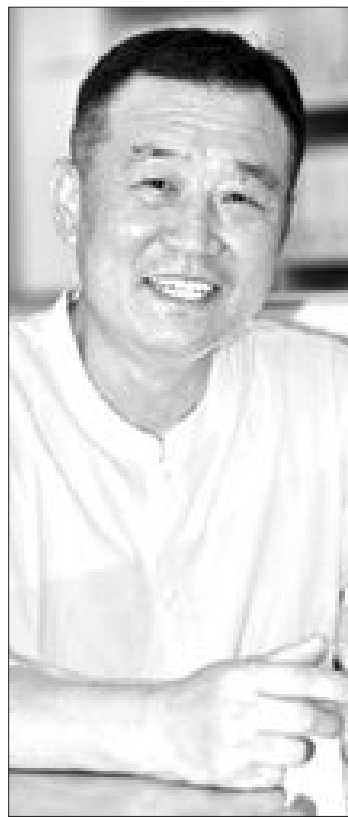
"공공시설에 전통주 체험장 만들었으면"

젊은 시절 어머니로부터 직접 술 빚는 방법 배워

"전통주는 특별한 술이라기 보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생활 속에서 직접 빚어 먹었던 술의 향기이자 자취입니다." 조선대와 호남대의 평생교육원에서 전통주 강의를 하고 있는 최기성(58) 강사는 "막걸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직접 술을 빚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먹을 수 있는 우리의 술을 더욱 연구·발전시키는 게 (나의)목표다"고 말했다.

다고 한다. 수년 전까지 전통주에 살 정도로 우리 것을 고수했던 집안에서 자란 탓에 잔치 때마다 술을 빚는 모습을 봐왔고, 직접 담가도 봤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탁주(막걸리)만을 전통주로 알고 있는데 전통주란 약주·탁주·소주(증류주)를 통틀어 말합니다. 전통주란 오래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곡물만을 가지고 대대로 이어온 가양주(가정에서 빚은 술)인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술을 뜻합니다." 최 강사는 젊은 시절 어머니로부터 술을 빚는 법을 배웠다. 조부모가 남구 양림동에서 살고 있을 때, 당시 광주 무형문화재(남도예예 음식장)인 이연체 선생이 집안에 자주 드나들며 음식과 술 빚는 법을 조모에게 가르쳐 주

었다. 조모는 그의 모친에게 전통주 빚는 법을 알려주었으며, 그는 모친에게 제조법을 배웠다. 젊었을 때부터 술 빚기에 관심이 있었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농촌진흥청 전통주 제조교육을 받으면서 전통주에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 모친의 가르침과 그에 따른 경험이 전부였던 그는 교육을 통해 술에 관한 모든 것과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면서 전통주 빚는 것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2년째 전통주 제조 교육을 하고 있는 그의 희망은 김치센터나 박물관 등과 같은 공공시설에 전통주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다. 상설 체험장을 개설해 시민이면 누구나 방문해 손쉽게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현대차 신형 아반떼 김연아, 1호 시승자

현대자동차는 내달 초 출시하는 신형 아반떼의 1호 시승자로 '피겨퀸' 김연아 선수를 선정하고, 2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시승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승식은 김연아가 지난 4월27일 부산국제모터쇼 신형 아반떼 공개 행사에 참여한 것이 인연이 돼 이뤄진 것으로, 김연아는 당시 "운전면허를 따면 신형 아반떼를 꼭 갖고 싶다"고 말했고 현대차는 이에 착안해 시승식을 제안했다.

일산 킨텍스 일대에서 20여분간 진행된 시승식은 김연아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는 점을 감안, 현대차 관계자가 운전하고 김연아는 옆 좌석에 등승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강우석 감독 작품 누적관객 3000만명

강우석(50) 감독이 지금까지 연출한 영화의 총 관객수가 3000만명을 돌파했다.



21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4일 개봉한 강우석 감독의 신작 '이끼'가 개봉 8일 만인 이날 오전까지 142만명을 동원했다.

강 감독은 장편데뷔작 '달콤한 신부들'(1988)부터 '감칠증: 공공의 적 1-1'(2008)까지 모두 18편의 작품을 통해 2860만명의 관객을 동원해 이날 오전 현재 누적 관객이 3002만명을 기록, 한국 영화 감독 중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한 감독이 됐다. 2위는 '해운대'(1151만명), '싸움시공'(408만명) 등을 히트시켜 1890만명을 모은 윤재규 감독이다. 강 감독이 연출한 18편 중 '살마모'는 1108만명을 동원, 역대 흥행기록 6위에 올라 있으며 '감칠증: 공공의 적 1-1'(444만명), '공공의 적 2'(390만명), '공공의 적'(302만명) 등도 300만명씩을 넘었다. /연합뉴스

"학생들 다니고 싶은 대학 만들겠다"

김필식 동신대 총장 취임

동신대학교 제6대 총장에 김필식 전 이사장이 취임했다. 신임 김 총장은 21일 교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앞으로 3~4년 후면 대학들의 위기가 시작되고 이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대학 발전과 구심적 역할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임기동안 잘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의 인생에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학생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알을 깨는 졸탁동시, 교수와 학생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교회사상, 교수보다 나는 제자를 길러내는 청출어



랍의 정신을 대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 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 교육, 사회와 호흡하고 소통하는 대학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초대 총장인 고(故) 이상섭 총장의 부인으로, 서울대 농가정학과를 졸업하고 동강대 교수 등을 거쳐 광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남동생이 김홍식 감사원장이다. /채희종기자 chae@



강만길 교수 정일근 시인 안현미 시인 이대흠 시인

만해문학상에 강만길·박형규·신홍범씨

신동엽 창작상 안현미씨 육사시문학 본상 정일근씨 육사 젊은시인상 이대흠씨

출판사와 문학관 등에서 수여하는 문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선정되고 있다. 장비가 주관하는 제25회 만해문학상 수상자로 강만길(고려대 명예교수), 박형규·신홍범씨가 공동으로 선정됐으며 제28회 신동엽창작상 수상자로는 시인 안현미씨가 선정됐다. 또 안현미씨 부문에는 시집 '귀가 서럽다'를 펴낸 장흥 출신 이대흠 시인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신동엽창작상 수상작은 안현미의 시집 '이별의 재구성'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생애에 대한 애정을 때로는 재치있는 유머로, 조금은 뼈뚫한 시선으로 담아내면서 현실의 불우를 환상으로 채색해가는 이 시인의 시세계는 우리의 감성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육사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TBC 대구방송이 제정한 제7회 육사시문학상의 본상은 정일근(경남대 교수) 시인에게 돌아갔다. 수상작은 시집 '기다린다는 것에 대하여'다. /연합뉴스

조대부고 총동창회장에

정병용 비케이종합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최근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정 신임 회장은 "36년간 다져온 건설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로 동창회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전남도 공무원 허재철씨 목포대서 박사학위 받아

전남도 세무회계과 허재철(토목 7급)씨가 '이중원형실린더에 작용하는 와류 방출 및 와류 진동 해석'이란 논문으로 목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씨는 논문에서 바람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전산유동장해석(CFD)'의 접근법을 사용하는 등 바람과 구조물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정철수기자 bung@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22회 동창회(회장 김경범) 월례회=22일(목) 오후 7시 운암동 오리명가. 062-525-5255.

알림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좌=8월21일(토) 오후 2시~5시 광주대 호심기념 도서관 5층 양택, 음택, 수택, 나경·임향문, 비결록명당, 장법요강 등 이론과 현장 제시(책자무료제공). 011-609-8117, 062-670-2161.

▲시민을 위한 미술치료무료강좌=27일(화)~8월 6일(금) 오전 9시 30분~12시 마음을 그림으로 치유하는 미술치료(일반·교사·학생·남·녀 노소 누구나 참여가능·수강료 무료) 일신중학교 평생교육원(교수 조

정아) 011-610-6589.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학회. 062-263-0208.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위기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 병원비·생필품),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dongfc.familynet.or.kr/)

모집

▲광주자원봉사센터 어르신지원 봉사단 모집=30일(금)까지 모집,

60세 이상. 예절교육, 학습도우미, 교통질서계도, 무료급식봉사, 공원 및 놀이터 환경미화, 문화유적해설, 숲 지킴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기초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문의는 국번없이 1365. ▲나주 아동가족상담센터 대상자 모집=미솔미로·연어치료, 전화·내방 접수 가능. 비용 1만8000원. 061-332-8991~2. ▲문정 배드민턴 클럽 회원 모집=오후 7시30분~10시30분까지 문산초·중학교 체육관. 010-3624-2141. ▲풋골프 회원모집 및 친선경기 주관원 선발=발로 발을 차 흠에 넣는 풋골프 회원 모집,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광주첨단교통공원 뒤 풋골프장. 010-4604-4608.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험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

6690~1.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반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보소이 무용학원 수시모집=발레·재즈·발레댄스 등 초·중·고등부 및 성인·취미반 모집, 차량운행. 062-955-4200. ▲무산 태권무예수원=영어·태

권도(태극리쉬) 및 대체의료운동(비만,미용,양생,호신,경락심신법) 태권무지도, 남녀노소 3월개강(동구정초소년수련관) 070-8235-5688, 010-3374-5699.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베네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집=노인장기요양보호자정기관으로 관선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용 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

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른신들을 모심. 061-371-8090. ▲국립나주병원 자원봉사자 모집=2주 1회 정기적으로 목욕 도우미 및 이미용 서비스, 정서지원 및 함께 운동하기, 노래 및 요가교실, 스포츠댄스 및 에어로빅. 지원자격은 대학생 및 현업 종사자. 문의 061-330-4169.

부음

▲강천대씨 별세 정회식·만식·복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장례식장)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services.

Advertisement for funeral services (장례식장)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for various services.